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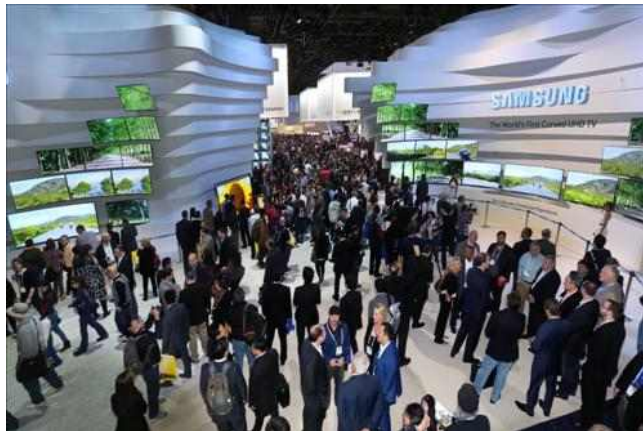
삼성전자, 글로벌 디스플레이 1위

시장점유율 26.5%로 8년 연속 ... LG전자는 15.3%로 2위 차지

삼성전자가 분기 TV 판매 신기록을 세우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자리를 지켰다.

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, 삼성전자는 2013년 4/4분기 평판 TV 판매량 1611만대를 기록했다.

분기 TV 판매량이 1600만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직전 최고 기록인 2012년 4/4분기 1539만대를 웃돌았다.



4/4분기 시장점유율은 28.3%를 기록했으며 연간 점유율은 26.8%로 2006년부터 8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LG전자가 15.3%로 2위, Sony 7.5%, TCL 5.6%, 하이센스 5.2%로 뒤를 이었다.

삼성전자의 TV판매실적은 세계 경기불황에도 프리미엄제품 전력과 현지 밀착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면서 선진시장과 성장시장에서 고루 선전한 결과로 분석된다.

북미·유럽은 블랙 프라이데이, 크리스마스 특수를 활용한 성수기 판촉이 성공을 거두면서 4/4분기에 북미 TV 시장점유율이 역대 최고인 40%를 기록했다.

경쟁이 치열한 중남미에서도 점유율이 30%를 넘어섰다. 50인치 이상 대형 TV 판매가 늘어났고, 축구 경기 시청에 맞게 화질과 음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커 모드(Soccer Mode) 등 지역 특화 기능이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이다.

삼성전자는 2014년에 최고 곡률의 커브드 울트라HD(UHD) TV를 비롯한 혁신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4/02/24>